

## [ 종합·해설 ]

# 이명박號 16개 시·도 민생투어

28일부터 지역별 '필승결의대회' 겸해...脫여의도·실용 이미지 부각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지역 선대 위 밸대식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이달 말부터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본격적인 지역 행보에 나선다.

이 후보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주도 필승 결의대회를 필두로 16개 지역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면서 동시에 민생현장을 들려보다는 계획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 등 범여권 후보들이 차례로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대결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대세 군기하에 나선 것이다. 특히 경선 후 정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조정국면을 맞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공격적 행보로도 파악된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16일 "이 후보는 오는 28일 제주도, 29일 광주, 30일 전남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기존 정치판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이 지역별 필승결의 대회를 지난 10일 선거대책위원회 밸대식과 같이 기존의 틀을 끼는 파격적인 행사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행사 명칭도 '국민 성공을 위한 한나라당의 다짐' 등으로 정해 이 후보의 탈여의도, 실용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 측은 '편(fun) 선거' 전략에 맞춰 정치성 행사보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반국민에게 다가가는 이벤트가 많이 마련하고 이 후보가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후보가 필승결의대회가 열리는 지역마다 하나씩 테마를 정해 민생현장을 찾고 '지역 맞춤형' 정책 공약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이는 대선준비팀이 15일 이 후보에게 보고한 '기존 한나라당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명박은 이명박다울 때 표가 나온다'는 연발 대선전략과 케이블화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각 지역 선대위 밸대식을 가급적 금주 내에 마무리하고 내주부터는 필승결의대회 준비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지역선대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역 선대위 행사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한편, 이 후보가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환경영웅(Hero of the Environment)'에 선정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박형준 대변인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타임(誌)가 2007년 10월 특별호에서 '세계 각국에서 환경 개선에 자대한 공을 세운 것으로 겸증된 이 후보 등 복수의 인사를 환경영웅으로 선정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 상은 지난해 타임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6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선정한 '영웅' 시리즈의 하나로, 이 후보는 서울숲 등 친환경적 생태시설 조성과 청계천 복원 등 환경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에는 순천으로 이동해 아동복지시설인 'SOS 어린이마을'을 찾아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눴다.

앞서 김씨는 광주 서구 삼록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광주시당 당원교육과 순천 동부워킹홀에서 개최된 전남도당 동부권 당원교육에 참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이후보 부인 김윤옥씨 광주·전남서 봉사활동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부인 김윤옥씨가 16일 광주와 순천의 복지시설을 찾았다가 방문해 배식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씨는 이날 오전 광주 남구 서동 직업 소년원내 무료급식 식당인 '사랑의 집'을 찾아와 40여분 동안 머무르며 노인 250여

명의 점심 배식을 도왔다.

수행원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온 김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마늘까는 일을 도운 뒤 노인들에게 밥과 국, 반찬이든 식판을 날랐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지지를

## 민주당 경선 '절반의 성공'

### '독자 대선후보' 선출 감행...범여권 한축 자리매김

지난달 20일 인천을 시작으로 26일 간 전국을 돌며 진행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16일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자 대선후보' 선출을 감행, 대선정국에서 범여권의 한축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민경선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릿수의 저조한 투표율과 불법선거 공방에 따른 후보 사퇴 파동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16개 시·도 지역순회 경선 결과, 선거인단 58만766명중 5만733명이 참여해 평균 투표율이 8.7%에 그쳤고 '텃밭'인 광주, 전남의 투표율도 각각 5.6%, 10.3%에 불과했다.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당의 경선 투표율이 지역경선 16.2%, 휴대전화 투표 75.0%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민주당은 흥행 '참패' 수준이다.

게다가 대통령민주신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동원선거 논란 등으로 후보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조순형 의원이 후보직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조 의원은 경선 초반전인 인천·전북 경선에서 조직력을 앞세운 이인제 후보에게 연거푸 패했고 급기야 지난달 30일에는 이 후보측의 동원·금품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운동을 전면중단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선 일정 잠정중단 등의 파행사태를 겪은 대통령민주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중단 없이 경선을 치러낸 점은 성과로 꼽힐 수 있다.

### 노무현 대통령, 국방부장관 악수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김정수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해북방 한계선(NLL)에 대해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김 장관의 입장에 관심이 쓰렸다.

##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주정

사회1부 차장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밝힌 성화가 지난 14일 꺼졌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는 최고의 음식 맛·친절한 문화도시라는 광주의 이미지를 충분히 심어준 체전이었다. 1천6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봤다.

영국동포선수단 서동현 단장은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광주만큼 친절하며 음식 맛있고 모든 것

이 풍부한 도시는 없었다. 놀라워 살아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전국 15개 시·도와 16개 해외동포 선수단 대표들을 대상으로 광주일보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입증한다. 광주 음식에 대해 87.2%가 '맛있다'고 했고, 경기장 시설에 대해선 61.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교통(54.9%)·숙박(51.7%)·문화체전(42%)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손님을 맞는 주인 입장에서 꿈꿔 되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때에 따라 달라진 '고무줄' 속박요금은 '바가지'를 써웠다는 인상을 줬다. 고교생 선수 속손에 의해 없이 틀어준 성인방송도 학부모들을 화나게 했다. 일부 해외동포 선수단은 음식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났다.

공군부대는 두 차례의 협조요청에도 경기장 상공에서 허용비행을 강행,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궁도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했다. 전남대는 테니스코트 보수공사를 제 때 하지 않아 초반 4일간 다른 경기장을 빌려쓰는 일이 벌어졌다. 외지 선수단에까지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받은 것은 '손님을 배려하지 않는 처사'로 비춰졌다.

이런 실수나 부작용 등을 어느 대회에서나 있던 것들이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시민들의 무질서한 운전 매너였다.

한 외국인은 체전 기간 중 광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로에서 기본적인 매너도 지키지 않는다'(no basic manners on the road)고 글을 올렸다. 그는 시민들이 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끼어들고, 차선을 바꿀 때 신호등을 켜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경적을 울리며 곧 추돌할 듯이 앞 차를 위협하고 버스 정류장에도 함부로 주차하는 것을 보면 제3세계 국가만도 못해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걸 보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법이 있는 도시입니다?' (Where is the law?)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지적이지만, 201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민들에게 묻는 시의적절한 질문인 것 같다.

'문화수도' 광주의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jjnews@kwangju.co.kr

##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진통제·호흡·피부·스포츠

• 새싹한약방은 새싹선물과 함께 있습니다.

NAVEE 접식장에 지리산한약방 을 찾으세요

문의 (062) 531-3038, 531-0700  
523-4600, 011-9512-5530

## 李-朴 앙금 남았나

### 朴 당직인사 불만 표출... '한반도 대운하'도 의견충돌

경선 이후 잠시 봉합된 듯 보였던 한나라당 내 갈등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이 한쪽으로 밀려난 대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도 박 전 대표 측이 당론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15일 밤 여의도의 한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나를 도운 사람이 죄인이나"며 이 후보 측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우울한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기득권도 포기하고, 정치발전을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내가 요즘 전화를 많이 받는데, 내용이 입기 어렵는데도 제거하고 한쪽으로 보내고 잘라낸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경선 때 캠프에 상당액을 기부하고, 박 전 대표 관련 행사를 몇 차례 개최한 점 때문에 미운털이 박힌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급 인사가 최근 사회 알려를 받았다는 게 박전 대표 측 주장이다.

또 전남, 충북, 충남, 울산, 경북 등 5개 시·도당의 사무처장 인사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친박 인사들이 대기발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 인사에서도 친박계 인사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친박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당내 갈등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놓고도 불거졌다. 15일의 원총회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당론 채택을 놓고 '이·박' 간의 갈등이 재연된 것이다.

이 후보 측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대운하는 국운을 융성시킬 수 있는 민족 당의 공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측 핵심인사인 유승민 의원이 "표결을 거쳐야 당이 민족적 정책정당으로 이 공약을 제시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부종산 자연화원 사설화원

### 高品格 정통 일본식 전통정원 유전

마리아 출판	02-540-0000
발리 정원	02-540-0000
도서관 출판	02-540-0000
여행사 출판	02-540-0000
유전	02-540-0000

부종산 자연화원 사설화원  
고급 정통 일본식 전통정원 유전  
마리아 출판  
발리 정원  
도서관 출판  
여행사 출판  
여행사 출판